

성적 소수자 지향성과 자살 위험성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

김 형 지

김 향 숙[†]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성적 소수자 지향성은 이성애적 지향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살 위험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다. 자살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을 고려컨대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며, 성적 소수자 지향성과 자살 위험성 간 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PsycINFO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 논문 중 성적 지향성 및 자살을 다룬 상호심사 논문을 평정 절차에 따라 선별·분석함으로써 두 변수 간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성적 지향성과 자살을 주요 변인으로 다룬 학술 논문의 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분석 대상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 방법은 크게 실증 연구와 이론 및 개관 연구로 구분하였으며, 실증 연구는 다시 양적, 질적 및 메타 분석적 연구로 세분화하였다. 메타 분석적 연구를 제외한 실증 연구에서 다룬 연구 참가자의 성적 지향성은 Lesbian, Gay, and Bisexual(LGB), Heterosexual(H), Questioning/Unsure(Q), Lesbian and Gay(LG), 그리고 기타의 5가지 범주였다. 분석 대상 논문의 연구내용은 크게 성적 지향성 및 자살 행동 간의 관계와 이에 관한 매개변인 및 조절변인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향후 관련 연구에 대한 필요성 및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적 소수자 지향성, 자살 위험성

[†] 교신저자 : 김향숙,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E-mail: hyangkim@sogang.ac.kr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녀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고(신승배, 2013), 이성애적 관계를 당연시하는(윤가현, 1997) 사회적 분위기를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국내의 성적 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 또는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을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강병철, 2011). 그런데도 한 사회에 존재하는 성적 소수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 중 2-10%에 이르는 연구 결과(윤가현, 1997)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상당수의 성적 소수자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적 소수자는 약 1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추정된다(강병철, 2011). 이처럼 국내 성적 소수자 인구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드러내도 안전하다고 느껴질 만큼 성적 소수자 지향성에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강병철, 2011; Dean et al., 2000; Solarz, 1999).

성적 소수자는 전체 인구 중 다수에 해당 하는 이성애자와는 다른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지칭한다. 현재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는 성적 소수자를 성적 지향성과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이라는 두 가지 특징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성적 자기-식별(sexual self-identification), 성적 행동(sexual behavior), 그리고 성적 끌림 또는 환상(sexual attraction or fantasy)의 하위 차원에 기반을 둔 개인의 정체감 또는 지속적인 패턴을 의미하지만, 후자는 스스로가 남성이거나 여성이라는 개인의 심리-내적 느낌(internal sense)을 의미한다. 이때 성적 지향성은 생물학적 성별, 젠더 정체성 혹은 사회적 성 역할(social gender

role)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문화권과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에 따라 이성애자(heterosexual; 이성에게 정서적, 애정적, 성적 끌림을 느끼는 개인), 동성애자(homosexual; 동성에게 정서적, 애정적, 성적 끌림을 느끼는 개인), 그리고 양성애자(bisexual;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정서적, 애정적, 성적 끌림을 느끼는 개인)로 구분되어 왔다(APA, 2008). 본 연구에서는 편의를 위해 각종 성적 지향성 집단을 L(lesbian; 동성애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 G(gay; 동성애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 B(bisexual; 양성애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 T(transgender;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성별과 자신이 심리-내적으로 느끼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개인), Q(questioning;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개인), 그리고 H(heterosexual; 이성애적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영문 대문자를 조합하여 GB 또는 LGBQ와 같이 표기하였다.

한편 현재까지 수행된 여러 국외 연구에 따르면 성적 소수자의 심리적 건강이 이성애적 성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의 심리적 건강보다 더 부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인다. 예를 들어, 국가 표본에서 모집된 16-20세의 LGBT 청소년 246명에게 구조화된 진단 면접을 진행한 Mustanski, Garofalo와 Emerson(2010)에 따르면 면접 대상자의 3분의 1이 정신 장애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그중 17%는 품행 장애, 15%는 주요 우울 장애, 9%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드물었으며 이들 중 평생 자살 시도(lifetime suicide attempt)를 보고한 비율은 31%였다. Fergusson, Horwood, Ridder와 Beautrais(2005)는 뉴질랜드 출생 코호

트(cohort) 자료를 통해 967명의 참가자가 21세 일 때와 25세일 때 정신 장애와 자살 행동을 측정하였다. 연구자들은 지배적으로 동성애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predominantly homosexual) 구성원의 정신 장애 및 자살 행동 비율이 이성애적 성적 지향성만을 가지고 있는 집단(exclusively heterosexual) 구성원보다 1.5-12배 더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King 등(2008)은 LGB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정신 건강의 위험성을 이성애자 개인과 비교한 체계적 고찰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성애자로 구분된 개인보다 LGB로 구분된 개인의 자살 시도가 2.47배 더 많았으며 우울 및 불안 장애는 최소 1.5배 더 높았고 과거 12개월 동안의 알코올 및 다른 물질 의존은 약 1.5배 더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여성으로 구분된 개인의 과거 12개월 동안의 물질 의존은 알코올의 경우 4배, 마약의 경우 3.5배 더 높았고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으로 구분된 개인은 평생 4.28배 더 자살을 시도했다. 그 밖에도 LGBT로 자주 분류되는 성적 소수자 집단에 속한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더 높은 자살 행동 위험성과 연관되어 있었으며(강병철, 하경희, 2005; 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양경미, 방소연, 김순이, 2012; Haas et al., 2011; King et al., 2008), 특히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연구에 따라 2-12배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Bontempo & D'Augelli, 2002; Eisenberg & Resnick, 2006; Fergusson, Horwood, Ridder & Beautrais, 2005; Garofalo et al., 1998; Garofalo et al., 1999; Haas et al., 2010; Russell & Joyner, 2001; Safren & Heimberg, 1999; Silenzio et al., 2007; Stone et al., 2014; 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 2008).

이처럼 LGB와 같은 성적 지향성이 자살, 기분 장애, 그리고 약물 사용을 포함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그 중에서도 자살과 관련된 문제는 그 결과가 생명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심각하다. 특히 성적 소수자 지향성 혹은 정체성을 지닌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더 높은 자살 행동, 위험성 및 시도율을 보고하였다는 기존 연구 결과는 성적 소수자 지향성과 자살 간의 관계를 더욱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두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이해가 신장한다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 자살률 감소와 더불어 국내에 거주하는 성적 소수자의 심리적 적응 및 안녕(well-being)의 향상과 같은 긍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살과 성적 소수자 지향성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보면, 국외에서는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해당 주제에 관한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여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2005년 1월 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국외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PsycINFO에서 'SEXUAL ORIENTATION' 혹은 'SEXUAL IDENTITY', 'LGB', 'GLB', 'SUICID*'와 같은 단어를 검색어로 설정했을 때 검색된 심리학 관련 학술 논문 및 석사 이상의 학위 논문 중 성적 지향성과 자살을 주요 변인으로 다룬 경우는 수백 편에 달했다. 반면 같은 시기에 국내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국회도서관, 누리미디어(DBPIA),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에서 '성적 지향(성)', '성(적) 정체성', '성적 소수자', '동성애'와 '자살'을 주요어(keyword)로 설정했을 때 검색된 연구 중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은

주요 변인으로 다룬 정신 건강 관련 학술 논문의 수는 4편(강병철, 하경희, 2005, 2006, 2007, 양경미, 방소연, 김순이, 2012)에 불과했다. 같은 조건에서 검색된 정신 건강 관련 학위 논문 중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을 주요 연구 변인으로 다루거나 측정된 연구의 수는 총 6편(김성연, 2014; 김유니, 2005; 김진이, 2016; 민재옥, 2016; 배진화, 2008; 이가희, 2010)에 그쳤다.

본 연구에서 앞서 명시한 분석 대상 연구 논문의 검색 기준에 따라 검색된 자살 및 성적 소수자 지향성에 관한 국내 학술 및 학위 논문 10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술 논문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한 횡단 연구(양경미, 방소연, 김순이, 2012)에서는 성적 정체성이 우울 다음으로 자살 사고를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예측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병철과 하경희(2005, 2006, 2007)는 청소년과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자살 위험성과 동성에 관한 특성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성적 지향성의 수용 정도, 반동성애적 폭력 경험 및 동성애자 친구의 수가 연구 참가자의 자살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들의 연구에서는 성적 지향성이 타인에게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드러났던 경험과 자살 위험성 간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학위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면, 김성연(2016)은 청소년부터 성인에 해당하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성인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에 기반을 둔 경로모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적 정체성 집단별로 자살 사고에 이르는 경로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김유니(2006)의 청소년 및 초기 성

인을 대상으로 한 횡단 연구에서는 동성애적 행동 경험이 자살 사고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이(2016)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성적 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가족의 수용 정도가 낮을수록 성인의 자살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민재옥(2016)은 성적 정체성을 드러낸 남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이성애자 성인 집단이 자살 관련 특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낙인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배진화(2008)의 연구에서는 동성애자 집단이 이성애자 집단보다 더 높은 자살 사고 수준을 나타냈으며 자살 사고를 예측하는 위험 요인들 또한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가희(2010)는 여성 동성애자 성인을 대상으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를 시행하여 반동성애적 폭력을 경험한 참가자가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종합건대, 성적 지향성 또는 성적 정체성과 자살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으나, 관계의 구체적 특성 및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체계적 고찰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통합적 이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메타분석(meta-analysis)의 경우, 국내에서는 수행된 바가 없고, 해외에서는 두 편의 연구(Hottes, Gesink, Ferlatte, Brennan, Rhodes, Marchand, & Trussler, 2016; Marshal et al., 2011)가 존재한다. 이들 연구는 성적 소수자 집단과 이성에 집단이 자살성(suicidality)이나 자살관련행동(예: 자살 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성적 소수자 지향성을 지닌 개인들의 자살 취약성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는

이렇듯 성적 지향성과 자살위험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기여하는 매개변인이나 보호 혹은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하는 조절변인 등,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통합적 고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적 지향성 및 성적 정체성과 자살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메타 분석적 연구 방법으로는 아우르기 어려운 두 변인 간의 관계 및 관련 요인들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월 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간 PsycINFO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성적 지향성 또는 성적 정체성과 자살에 관한 연구를 분석·정리하여 성적 소수자의 자살에 관한 국외 연구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향후 관련 연구 및 과제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적 소수자 지향성이 자살에 이르는 기제를 설명하는 매개변인 및 이와 관련된 개인차를 설명하는 조절변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높은 자살 취약성을 보이는 성적 소수자를 위한 심리적 개입에 유용한 정보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방 법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외 심리학 학술 및 학위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PsycINFO에 등재된 학술 연구 논문 중 성적 지향성 및 성적 정체성과 자살 간의 관계를 다룬 상호심사 논문 총 162편을 범주 분류 대상에 포함하였다. 분류 대

상에 포함된 논문은 PsycINFO에서 'SEXUAL ORIENTATION', 'SEXUAL IDENTITY', 'LGB', 'GLB', 'QUESTIONING', 'UNSURE', 'UNCERTAIN'과 'SUICID*'를 주요어로 검색한 후 아래의 평정절차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선별하였다. 이처럼 검색어를 다양하게 사용한 이유는 현재 국외 연구자들 사이에서 'SEXUAL ORIENTATION'과 'SEXUAL IDENTITY'가 혼용되는 경우가 잦고 'LGB'를 'GLB'라고 표기하거나 연구 참가자의 성적 지향성 또는 성적 정체성을 분류하는 한 가지 유형에 'QUESTIONING', 'UNSURE', 'UNCERTAIN'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 지향성 또는 성적 정체성과 자살 간 관계에 대한 국외의 최신 연구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판된 상호 심사 논문만을 분류 및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평정 절차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 선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색어를 통해 검색된 논문의 초록과 본문의 내용에서 해당 논문이 성적 지향성 또는 성적 정체성과 자살을 연구 변인 혹은 주요 논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거나, 이들 중 한 가지 변인만을 다루거나, 성적 지향성이 아닌 젠더 관련 정체성 및 트랜스섹슈얼리즘만을 포함하거나, 성적 지향성보다 젠더 관련 정체성 및 트랜스섹슈얼리즘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성적 지향성을 분석에 포함하거나(예: otherwise, queer), 다른 축I 장애(예: 양극성 장애)를 우선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연구 참가

자로 포함하거나,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 개인만을 연구 참가자로 설정하거나, 연구가 아닌 사설(editorial), 기존의 출판물에 대한 수정(erratum/correction), 특정 연구에 대한 비평(comment), 편지글(letter) 또는 책 논평(book review)이거나, 본문이나 제목이 영어가 아니거나, 내용상 분류 범주의 구분에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거나(예: 참가자의 연령), 초록 내용상 선별 기준은 충족하나 본문 내용에 접근이 불가하였던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분류 범주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분석 대상 논문의 제목, 논문의 초록에 명시된 내용, 그리고 논문의 본문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분류 범주는 크게 논문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나뉘며 형식의 경우 1. 기초사항(발행 연도), 2. 연구 방법(실증 연구, 이론 및 개관 연구), 그리고 3. 연구 참가자(연령대, 성적 지향성)의 세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내용의 경우 1.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 2.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 매개 효과 중심, 3.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 조절 효과 중심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분류 범주와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 이상의 분류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분석 대상 논문에 대하여, 각 분류 범주에 따라 빈도 점수를 부여하여 계산하는 선행연구의 방법(김은하, 박승민, 2011)을 참고하였다. 각 분류 범주의 빈도 점수는 “1/해당 논문에서 다룬 분류 범주의 수”의 계산 공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즉, 분석 대상 논문이 하나의 분류 기준이 되는 범주만을 다루었다면 그 분류 범주에 빈도 점수 1점을 부여하였고, 두 개의 범주를 다룬 경우에는 각 분류 범주에 0.5점씩을, 세 개의 범주를 다룬 경우는 각 0.3점씩을 부여하였다. 또한, 트랜스섹슈얼리즘은 분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범주 계산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다룬 참가자의 연령 범위가 15-60세였다면 청소년 및 초기 성인, 그리고 성인 이상의 범주에 각 0.5점씩을, 참가자의 성적 지향성이 LGBTQH였다면 LGB, Q, H 범주에 각 0.3점씩을 부여하였다.

표 1. 분류 범주에 따른 세부 내용

분류 범주	세부 내용
형식	
기초사항	발행 연도
연구 방법	실증 연구(양적, 질적, 메타) 이론 및 개관 연구
참가자	연령대(청소년 및 초기 성인, 성인 이상) 성적 지향성(Lesbian and(or) Gay, Bisexual, Questioning, Heterosexual, 기타)
내용	
연구내용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 매개 효과 중심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 조절 효과 중심

결 과

기초사항

성적 지향성 또는 성적 정체성과 자살 관련 국외 연구의 발행 연도별 논문 수를 살펴보면, 2005년에 6편이 출판되었고, 2006년에는 9편, 2007년에는 5편, 2008년에는 6편, 2009년에는 9편, 2010년에는 14편, 2011년에는 14편, 2012년에는 15편, 2013년에는 13편, 2014년에는 18편, 2015년에는 23편, 그리고 2016년에는 30편이 출판되었다. 한편 주요 검색어를 통하여 검색된 논문 중 초록 상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될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연구자가 가용한 데이터베이스의 제한으로 본문의 열람이 불가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논문이 2015, 2016년에 각각 3, 5편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당 주제에 관한 국외 연구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나타낸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에 따른 동향은 전체 분석 대상 논문 162편 중 기타 연구로 분류된 논문 45편을 제외한 117편의 논문을 실증 연구와 이론

및 개관 연구로 구분하였다. 기타 연구는 성적 지향성의 정의 및 측정에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선정 기준과 달라 연구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 방법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실증 연구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그리고 메타 분석적 연구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총 103편의 실증 연구 중 메타 연구는 2편, 질적 연구는 8편뿐이었으며 나머지 93편은 양적 연구였고 이들 중 횡단적 접근 방식을 사용한 연구가 75편, 종단적 접근 방식을 사용한 연구가 18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양적 연구 93편에 사용된 분석 방식으로는 회귀 분석 계열이 가장 많았고(65.59%) 변량 분석이 그다음을 차지하였다(22.58%). 회귀 분석을 주 분석 방식으로 사용한 연구는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개인 내·외적 요인이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대다수였다. 주로 변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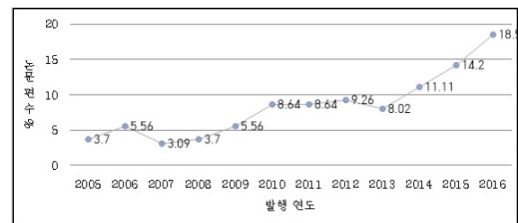


그림 1. 발행 연도별 성적 지향성 또는 성적 정체성과 자살 행동 관련 연구 논문 수

표 2. 발행 연도별 성적 지향성 또는 성적 정체성과 자살 행동 관련 연구 논문 수

발행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논문 편 수	6	9	5	6	9	14	계
%	3.70	5.56	3.09	3.70	5.56	8.64	
발행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62편
논문 편 수	14	15	13	18	23	30	(100.0%)
%	8.64	9.26	8.02	11.11	14.20	18.52	

분석을 사용한 연구는 성적 지향성이나 성별, 또는 인종 집단별로 자살을 비롯한 심리적 건강을 비교하되 회귀 분석적 접근도 함께 사용한 연구가 많았다. 질적 연구 8편에 사용된 분석 방식으로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이 3편, Giorgi의 방법론적 절차(methodological procedure)가 1편, Foucauldian 이야기 분석적 접근(discourse analytic approach)이 1편, “reflexive”라고 보고한 경우가 1편, 그리고 분석 방법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2편이었다. 이론 및 개관 연구는 모두 14편이었다.

참가자

연구 참가자에 따른 분포는 전체 분석 대상 논문 162편 중 기타 연구 45편, 이론 및 개관 연구 14편, 그리고 메타 연구 2편을 제외한 나머지 실증 연구 101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크게 연령대와 성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타 연구는 성적 지향성의 정의 및 측정에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선정 기준과 달라 공통된 분류 체계로 통합되기 어려우므로 연구 참가자 분류에서 제외

하였다. 연구 참가자의 연령대 분류 기준은 Arnett(2000, 2004)에 따라 18세 이하는 “청소년”, 19-24세는 “초기 성인”, 그리고 25세 이상은 “성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연령대 범주는 25세 미만이 과거 12개월 동안 가장 높은 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를 보였다고 보고한 Wang, Häusermann, Wydler, Mohler-Kuo와 Weiss(2012)의 연구와 24세 이하의 동성애자 남성이 25세 이상의 동성애자 남성보다 자살 성 지표에서 유의하게 더 큰 값을 보였다고 보고한 Bybee, Sullivan, Zielonka와 Moes(2009)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24세 이하의 청소년 및 초기 성인과 25세 이상의 성인 이상의 두 범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대 분포에서는 청소년과 초기 성인을 연구 참가자에 포함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73.8%), 성인 이상의 연령대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편이었다(26.2%).

연구 참가자의 성적 지향성에 따른 분류는 전체 분석 대상 논문 162편 중 기타 연구 45편, 이론 및 개관 연구 14편, 그리고 메타 연구 2편을 제외한 나머지 실증 연구 101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5가지로 구분하였

표 3. 양적 연구 방법별 동향

	회귀	변량	군집	SEM	계
논문 빈도	61.0	21.0	2.0	9.0	93.0
%	65.59	22.58	2.15	9.68	100.0

표 4. 양적 및 질적 연구 참가자의 연령대별 범주 분포

	청소년 및 초기 성인	성인 이상	계
논문 빈도	74.5	26.5	101.0
%	73.8	26.2	100.0

다. 구체적인 분류 범주는 “LGB”, “H”, “Q”, “LG”, 그리고 “기타”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LGB를 측정된 연구가 가장 많았고(46.5%), 다음으로 H를 측정된 연구(28.3%), Q를 측정된 연구(13.2%), 기타(7.0%), 그리고 LG를 측정된 연구(5.0%) 순이었다.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분석 대상 논문 총 7편은 각 1편씩 GBHQ 남성만을 연구 참가자로 다룬 경우, GBH 남성만을 연구 참가자로 다룬 경우, GBQ 남성만을 연구 참가자로 다룬 경우, LGBQ 여성만을 연구 참가자로 다룬 경우, 동성애자 여성만을 연구 참가자로 다룬 경우와 GB 남성만을 연구 참가자로 다룬 연구 2편이었다. 연구 참가자의 성적 지향성에 따른 자세한 분포는 표 5와 같다. 101편의 실증 연구 논문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표 5의 논문 빈도 계가 101.0 미만의 값을 나타내는 이유는 LGBQH와 같이 셋 이상의 성적 지향성 범주를 다루는 논문의 빈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연구내용

연구내용 유형에 따른 분류 범주는 전체 분석 대상 논문 162편 중 기타 연구 45편, 이론 및 개관 연구 14편, 그리고 메타 연구 2편을 제외한 나머지 실증 연구 101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1)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 (2)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 매개 효과 중심, (3)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 조절 효과 중심의 3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기타 연구는 성적 지향성의 정의 및 측정에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선정 기준과 달라 연구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내용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내용 유형에 따라 구분한 논문 수는 표 6과 같다. 세 가지의 연구내용 유형 중 가장 많은 논문 빈도를 차지한 연구내용은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였다(52.5%). 다음은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 효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

표 5. 양적 및 질적 연구 참가자의 성적 지향성별 범주 분포

	LGB	H	Q	LG	기타	계
논문 빈도	46.4	28.2	13.2	5.0	7.0	99.8
%	46.5	28.3	13.2	5.0	7.0	100.0

주. LGB=Lesbian, Gay, Bisexual; LG=Lesbian and Gay, Q=Questioning/Unsure/Uncertain of one's sexual orientation/identity.

표 6. 연구내용 유형별 성적 지향성 또는 성적 정체성과 자살 행동 관련 연구 논문 수

연구내용	(1)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	(2)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 매개 효과 중심	(3)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 조절 효과 중심	계
논문 빈도	53.0	9.5	38.5	101.0
%	52.5	9.4	38.1	100.0

(38.1%), 그리고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 효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9.4%) 순이었다. 위협 요인(표 7)과 취약성 및 보호 요인(표 8)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연구의 원문에서 해당 변인에 대한 명시적 기술이 존재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예컨대 해당 변인이 원문에서 위협 요인(risk factor(s))이라고 명명되었거나, 자살 행동에 대하여 보호 효과(protective effect)를 주었다고 기술되었거나, 자살 행동의 위협성을 감소시켰다고 명시된 경우 등만 표 7과 8에 포함하였다. 연구 내용에 따른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 중 대부분은 성적 지향성이 자살 행동에 대하여 갖는 효과를 다루고 있다. 분석 결과, Birkett, Espelage와 Koenig(2009)의 연구를 제외하면 LGBQ 개인은 이성애적 지향성만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 비해 자살 행동을 나타낼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관련된 연구내용은 크게 (i)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련성 및 인과성을 중점으로 다룬 연구, (ii) 성적 지향성 하위 범주 집단이 보이는 자살 행동의 특성을 중점으로 다룬 연구, 그리고 (iii) 성적 지향성 및 자살 행동과 관련된 제3의 변인을 중점으로 다룬 연구로 구분되었다.

우선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Button, O'Connell과 Gealt(2012)는 청소년 연구 참가자의 성적 지향성과 자살 사고, 계획 및 시도 간의 상관을 횡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LGBQ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이성애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과 비교해 자살 사고

및 계획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약 4배 더 높았고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은 약 5배 더 높았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가 젠더, 인종, 연령,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접근성과 상관없이 존재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Fish와 Pasley(2015)는 1995년부터 총 4회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성적 지향성과 자살 사고 및 시도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LGB 집단은 측정 시기를 막론하고 이성애자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살 사고 및 시도를 나타냈다. 특히 청소년에서 성인이 된 LGB 집단 중 자살 사고 및 시도에서 이성애자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집단은 양성애자 집단뿐이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자살 사고 및 시도에 대한 LGB 개인의 집단-내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Fergusson, Horwood, Ridder와 Beautrais(2005)는 종단 연구 방식을 사용하여 성인의 성적 지향성과 자살 사고, 시도 및 전반적 정신 건강 간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는(predominantly homosexual orientation) 개인의 정신 장애와 자살 행동 비율은 이성애적 성적 지향성만을 가지고 있는(exclusively heterosexual orientation) 개인과 비교하여 1.5-1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LGBQ의 하위 범주 집단에 따른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Blosnich와 Bossarte(2012)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자살 사고, 시도 및 자해에 대한 사회적 스트레스원의 독립적 상관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양성애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다른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살 사고 및 자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Robinsom과 Espelage(2011)는 LGBTQ 지향성을 는 성별, 인종, 정신 진단/치료, 그리고 높은 지닌 7-12학년을 대상으로 성적 지향성과 자 스트레스 수준이 통제된 후에도 유의하였다. 살 사고 및 시도에 대한 횡단적 상관 연구를

표 7. 성적 소수자의 자살 행동(자살 사고, 자살 시도) 위험 요인

유목	변인	논문 예	
개인 내적	낮은 자존감 수준**	Hidaka & Operario(2006)	
	내면화 문제 (우울, 불안)**	Hegna & Wichstrøm(2007)	
	무망감**	Mustanski & Liu(2013)	
	우울 증상**		
	자살 시도 과거력**		
	충동성**		
	성적 지향 특징적	폼행장애 증상**	Button, O'Connell & Gealt (2012) Blosnich & Bossarte(2012) Robinson & Espelage(2011)
		성적 소수자 지향성 (LG < B***Q)	
	일반적	괴롭힘**	Hegna & Wichstrøm(2007)
		부모와의 연락 부족**	
주기적 흡연**			
가족의 낮은 지지 수준**		Mustanski & Liu(2013)	
아버지와의 낮은 지각된 친밀함* 아동기의 성적 학대*		Eskin, Kaynak-Demir & Demir(2005)	
사회 · 맥락적	15세 미만에 수행한 커밍아웃** 16세 미만에 시작한 이성애적 활동** 모든 이성애자 친구에게 수행한 커밍아웃** 이성애자 친구와의 낮은 연락 빈도** 현재 지속 중인 이성애적 관계**	Hegna & Wichstrøm(2007)	
	성적 지향 특징적	LGBT 관련 괴롭힘** 더 어린 연령에 경험한 동성애적 끌림**	Mustanski & Liu(2013)
		기독교 신앙과의 갈등**† †	Subhi & Geelan(2012)
	6명 이상의 친구에 대한 커밍아웃**† 동성애적 지향성으로 인한 언어적 학대**† 여성과의 성관계 경험**† 인터넷을 통한 남성과의 만남**†	Hidaka & Operario(2006)	

*: 자살 사고만 해당, **: 자살 시도만 해당, ***: 자해도 해당, † : GBQ 남성만 해당, † † : LG만 해당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LGBTQ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이성애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보다 자살 사고 및 시도를 보고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특히 양성애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Q 집단의 학생은 이성애적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보다 자살 사고를 보고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성적 지향성과 자살 간의 관계에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제3의 변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Mustanski와 Liu(2013)는 LGBT 청소년 및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적 및 LGBT-특정적인 자살의 위험 요인과 자살 시도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종단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인 자살의 위험 요인 중에서는 우울 증상, 품행 장애 증상, 충동성, 무망감, 가족의 낮은 지지 수준이 평생 동안의 자살 시도 과거력과 연관되어 있었다. LGBT-특정적인 자살의 위험 요인 중에서는 LGBT 관련 괴롭힘과 더 어린 연령일 때 경험한 동성애에 대한 끌림이 더 높은 수준의 자살 시도 과거력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단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우울 증상, 무망감 및 평생 자살 시도 과거력이 12개월의 추수 기간 동안 나타난 자살 시도와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다변량 모형에서는 과거의 자살 시도만이 12개월의 추수 기간 동안 발생한 자살 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그밖에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성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앙(Christianity)과 동성애 간의 인지부조화로 인한 개인 내적 특성을 질적 방법으로 연구한 연구자들도 있다. Subhi와 Geelan(2012)은 남녀 기독 동성애자의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과의 갈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그 영향에는 우

울, 죄책감, 불안, 소외, 그리고 자살 사고가 포함되었다고 보고하였다. Hegna와 Wichstrøm (2007)은 GLB 청소년과 성인의 자살 시도에 대한 일반적 위험 요인을 넘어선 GLB-특정적 위험 요인을 찾기 위한 추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와의 연락 부족, 우울과 불안의 내면화 문제, 낮은 자존감, 주기적 흡연, 괴롭힘이 GLB 개인의 자살 시도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 요인이었다. GLB-특정적 위험 요인 중 일부는 앞서 밝혀진 자살 시도의 일반적 위험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GLB 개인의 자살 시도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GLB-특수적 요인에는 현재 지속적인 이성애적 관계에 있는 것, 16세 미만에서 처음으로 이성애적 활동을 시작하는 것(early heterosexual debut), 15세 미만에 커밍아웃(coming-out: 타인에게 자신의 성적 소수자 지향성을 자발적으로 알리는 행동)을 하는 것, 이성애 친구와 드물게 연락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이성애 친구들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개방하는 것이 있었다. Hidaka와 Operario (2006)는 GBQ 남성 청소년 및 성인의 자살 시도와 심리적 괴로움(psychological distress) 간의 상관 연구를 통하여 GBQ 남성의 자살 시도에 대한 보호 및 위험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낮은 수준의 자살 시도 가능성과 독립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반면, 낮은 자존감 수준, 동성애자로 인식되어 타인에게 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것, 여성과의 성관계 경험, 인터넷을 통한 남성과의 만남, 그리고 6명 이상의 친구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밝히는 것은 높은 자살 시도 가능성과 독립적 연관성을 나타냈다. Eskin, Kaynak-Demir와 Demir(2005)는 대학생의 동성애적 지향성과 아동기의 성적 학대 및 자

살 행동 간의 상관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들은 낮게 지각된 아버지와의 친밀함, 자기-보고된 동성애적 지향성, 그리고 아동기의 성적 학대가 과거 12개월 동안 발생한 자살 사고에 대한 독립적 예측 요인이었으며, 아동기의 성적 학대가 과거 12개월 동안에 발생한 자살 시도를 독립적으로 예측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 매개 효과 중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연구는 모두 성적 지향성과 자살 간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매개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두 변인 간의 관계 양상을 연구한 논문의 수는 연구 내용에 따른 세 가지 분류 범주 중 가장 적었다. 한편 관련 연구에서 주목한 매개변인으로는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괴롭힘, 학대 경험, 사회적 지지, 지각된 차별, 내면화된 성적 낙인 등 다양한 사회·맥락적, 개인 내적 변인이 공존하였다.

먼저 Robinson과 Espelage(2012)는 LGBTQ 지향성을 지닌 청소년의 성적 지향성과 자살 사고, 시도, 및 무단결석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또래 괴롭힘이 성적 지향성과 자살 사고 간의 관계를 매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LGBQ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이성애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보다 자살 사고의 가능성은 3.3배, 자살 시도의 가능성은 3.0배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그 과정에서 또래 괴롭힘의 영향을 설명하니 자살 사고의 경우 37%, 자살 시도의 경우 33%에 대한 설명량이 감소하였다. Burton, Marshal, Chisolm, Sucato와 Friedman(2013)은 14-19세의 성적 소수자 지향성과 우울, 자살 사고 및 시도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LGB 개인이 이성애자 개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살 사고 및 의도를 나타냈으며, 성적 소수자-특정적 괴롭힘이 우울 증상과 자살 사고 및 의도를 매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Hill과 Pettit(2012)은 GLB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성인 대학생의 자살 사고 점수가 이성애적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살 사고 점수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자신이 타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개인의 인식(perceived burdensomeness)이 그들의 성적 지향성과 자살 사고 간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McLaughlin, Hatzenbuehler, Xuan과 Conron(2012)은 LGBH 성인 참가자의 종단 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성적 소수자 지향성과 자살 사고 및 시도 간의 관계를, 초등학교 6학년 이전에 경험한 어려움(exposure to adversity)의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연구 결과, LGB 지향성이 이성애적 지향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자살 사고 및 시도와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이 상관관계는 사회-인구적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밖에도 연구자들은 아동기 신체적/성적 학대, 집 없음, 쫓겨남, 친밀한 파트너의 신체적/성적 폭력과 같은 생애 초기의 역경에 대한 노출을 설명했을 때 자살 사고 및 시도에 대한 변수의 설명량이 10.7% 감소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Blosnich, Bossarte와 Silenzio(2012)는 LGB 성인 군인을 대상으로 성적 지향성과 자살 사고 간의 관계에 대한 상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들은 LB 여성이 이성애자 여성보다 더 낮은 사회적/정서적 지지와 더 높은 자살 사고 경험 비율(prevalence)을 보고하였으며, 성적 소수자 지향성과 자살 사고 간의 관련성이 인구통계학적 공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그밖에도 연구자들은 사회적 및 정서적 지지의 가용성(availability)과 나쁜(poor) 정신 건강 상태가 성적 소수자 상태와 자살 사고 간 관계를 약화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Needham과 Austin(2010)은 성인의 성적 소수자 지향성과 자살 사고 간의 관계가 부모의 지지 수준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종단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LB 여성과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남성이 이성애자 개인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자살 사고를 보고하였으며 부모의 지지가 성적 지향성과 자살 사고 간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Teasdale과 Bradley-engen(2010)은 동성애에 대한 끌림을 보고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자살 사고 및 시도를 보고하였고 이 결과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지속하였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연구자들은 사회적 스트레스를 통제했을 때 동성애에 대한 끌림과 자살 경향성 간 관련성이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유의하였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동성애에 대한 끌림과 자살 경향성 간의 관계 중 22%를 설명했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부분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Almeida, Johnson, Corliss, Molnar와 Azrael(2009)은 13-19세 LGBT 개인의 성적 지향성과 우울 증상, 자해 및 자살 사고 간의 관계를, 지각된 차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LGBT 개인은 이성애자 개인보다 더 높은 우울 증상, 자해 및 자살 사고 점수를 보고하였으며, 지각된 차별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했을 때 LGBT 상태가 우울 증상 및 자살 사고의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울 증상의 위험성에 대하여서는 여성의 경우 23%, 남성의 경우 56%의 영향력이 완화되었고, 자살

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서는 남성의 경우에만 37%의 영향력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Baiocco 등(2014)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모집한 LG 성인을 대상으로 동성애-관련 스트레스원과 자살 사고 간의 관계에 대한 상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내면화된 성적 낙인(internalized sexual stigma)이 성적 지향성의 은폐, 종교적 관여 및 과거의 괴롭힘 경험과 자살하고자 하는 태도(suicidal attitudes) 간의 관계에 대한 잠재적 조절변인이 될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주장하였다.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 조절 효과 중심.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 효과를 살펴본 연구 중에서는 (i) 연령과 같은 참가자 변인의 조절 효과와 (ii) 성적 소수자 혐오 범죄 발생 지역 주변과 같은 사회·맥락적 변인의 조절 효과가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우선 연령에 따른 조절 효과를 살펴본 연구로는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Wang, Häusermann, Wydler, Mohler-Kuo와 Weiss(2012)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GB 남성의 지난 12개월 동안의 자살 사고, 계획 및 시도와 평생 자살 사고 및 시도율이 이성애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이 효과가 25세 이상에서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Russell과 Toomey(2012)는 종단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성적 지향성과 자살 사고 및 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남성의 자살 사고 및 시도의 위험성은 청소년기에 국한되었으며 연령과 성적 지향성 간에 상호 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해당 연구 결과를 발달 현상 중 하나로 해석하였다. 성인

을 대상으로 이성애 및 동성애적 지향성과 자살 사고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Bybee, Sullivan, Zielonka와 Moes(2009)도 24세 이하의 동성애자 남성이 25세 이상의 동성애자 남성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자살 사고를 보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연령이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 14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지향성과 자살 사고 및 시도 간의 관계를 연

구한 Zhao, Montoro, Igartua와 Thombs (2010)는 사후 분석에서 자살 사고 및 시도에 대한 연령과 성적 정체성 간 상호 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어떤 경우에도 모형 적합도를 향상시키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 관계에 대한 연령의 효과를 중단 연구를 통해 알아본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Marshal 등(2013)은 성적 지향성과 자살 사고, 시도 및 자해를 포함하는 자살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중단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8. 성적 소수자의 자살 행동(자살 사고, 자살 시도) 취약성 및 보호 요인

유목	변인	논문 예	
개인 내적	취약성	성별 (여성)* 성적 정체성의 혼란*	Silva, Chu, Monahan & Joiner(2014)
	요인	연령 (15-19 > 20-24 > 25)	Marshal et al.(2013) Wang, Häusermann, Wydler, Mohler-Kuo & Weiss(2012)
	보호 요인	연령 (25 > 20-24 > 15-19)	Marshal et al.(2013) Cardom, Rostosky & Danner(2013)
사회·맥락적	취약성	LGBT 혐오 범죄 발생 지역 주변 (반경 400m: 자살 시도, 반경 800m: 자살 사고)	Duncan & Hatzenbuehler(2014)
	요인	성적 정체성 혼란*	Birkett, Espelage & Koenig(2009)
		생존을 위한 성관계**	Walls, Potter & Van Leeuwen(2009)
		지역 (지방 > 도시)	Poon & Saewyc(2009)
		가족의 수용	Ryan, Russell, Huebner, Diaz & Sanchez(2010)
	보호 요인	긍정적 학교 분위기	Birkett, Espelage & Koenig(2009)
		부모의 지지	Espelage, Aragon, Birkett & Koenig(2008)
	사회적 지지*	Shtayermman, Reilly & Knight(2012)	
	성인과의 유대감	Seil, Desai & Smith(2009)	
	학사 학위**†	Hidaka & Operario(2006)	

*: 자살 사고만 해당, **: 자살 시도만 해당, † : GBQ 남성만 해당

연구자들은 총 4차에 걸쳐 수집된 연구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1차와 2차에서는 특별히 극단적인 연령인 12, 13, 19세 1,996명을 제외한 14-18세와 15-19세의 자료를, 3차에서는 20-24세, 그리고 4차에서는 27-31세의 자료를 통해 총 12,379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LGB 개인은 이성애적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 비해 더 높은 우울, 자살 사고 및 시도, 그리고 치료를 요구하는 자살 시도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청소년기(15-19세)에서 초기 성인기(20-24세)로 이행하면서 모든 성적 지향성 집단의 자살 행동은 감소하였으나 LGB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이성애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 간의 자살 행동 격차는 유지되었다. 그밖에도 Cardom, Rostosky와 Danner(2013)는 성적 지향성과 우울 증상, 자살 사고 및 시도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성애자(straight), 대부분 이성애자(mostly straight), 양성애자(bisexual), 대부분 동성애자(mostly gay), 동성애자(gay)의 5개 집단에 속한 개인의 자살 사고 및 시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자살 사고의 경우 대부분의 동성애자 집단에서는 감소하지 않았고 자살 시도의 경우 양성애자 집단에서는 감소하지 않았다. 한편 참가자의 성별에 따라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 양상이 변했다고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 Silva, Chu, Monahan과 Joiner(2014)는 LGBH 성인의 불안과 긍·부정적 정동을 통제된 상태에서 성별을 조절변인으로, 지각된 짐스러움(perceived burdensomeness)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뒤 성적 정체성과 자살 사고 간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의 경우에만 성적 정체성과 자살 사고 간의 관계가 유의하였으며, 참가자의 성별이 성적 정체성과 자살 사

고 간의 관계에 대하여 갖는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에 더하여, 성적 정체성 혼란과 같은 참가자 변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존재하였다. Rose, Rodgers와 Small(2006)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7-12학년 청소년의 자료를 통해 성적 정체성 혼란과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공분산분석(ANCOVA, MANCOVA) 결과,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자살 사고를 비롯한 여러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고하였고 성적 정체성의 혼란이 이와 같은 결과의 변량을 30%까지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맥락적 조절변인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uncan과 Hatzenbuehler(2014)는 9-12학년 LGBT 청소년을 분석하여 성적 지향성과 과거 1년 동안의 자살 사고 및 시도 간의 관계를 LGBT 대상 혐오 범죄 발생 지역에 따라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LGBT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발생 지역으로부터 반경 800m 근처에 거주하는 LGBT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하여 유의하게 더 높은 자살 사고율을 보고하였으며, 반경 400m 근처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자살 시도율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Poon과 Saewyc(2009) 역시 7-12학년 참가자에게 수집한 자료를 통해 성적 지향성과 자살 사고 및 시도 간의 관계를 참가자의 거주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연구자들은 LGB 소년 중 33.3%가 지난 해 자살 사고를, 11.2%가 지난해 자살 시도를 보고하였는데 그 중 지방 지역에 거주하는 LGB 소년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또래에 비해 자살 사고 및 시도를 보고할 확률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Walls,

Potter와 Van Leeuwen(2009)은 25세 이하의 개인을 대상으로 보호 관리 여부와 자살 시도, 그리고 생존을 위한 성관계와 자살 시도 간의 관계를 성적 지향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LGB 개인은 이성애자 개인에 비해 거의 3배 이상의 자살 시도를 보고하였으며 생존을 위한 성관계가 성적 소수자 개인의 자살 시도율을 높였다는 점에서 성적 지향성과 자살 시도 간 관계를 조절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밖에 Seil, Desai와 Smith(2009)는 9-12학년 LGBQH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LGB 개인으로 식별되는 것과 자살 사고 및 시도 간의 관계가 성인과의 유대감(adult connectedness)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LGB 개인의 자살 시도 및 시도율은 이성애자 개인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이었다. 더불어서 성적 지향성을 막론하고 학교에서 성인과의 유대감이 있다고 응답한 개인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개인에 비하여 과거 12개월 동안 더 낮은 수준의 자살 사고 및 시도를 보고하였다. 특히 학교에서 성인과의 유대감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이성애자 개인(자살 사고 및 시도 승산비(odds ratio) 모두 1.00)에 비하여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LGBQ 개인의 과거 12개월 동안의 자살 사고 및 시도의 승산비는 각각 6.71과 6.25에 달했다. Shtayermman, Reilly와 Knight(2012)는 청소년 및 초기 성인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 사고와 사회인구학적 변인, 우울, 불안 증상 지표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LGB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이성애자라고 응답한 개인에 비해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의 자살 사고를 나타내었다. 이어서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가 연령, 결혼 상태, 성적 지향성, 불안 증상과 관련된

자살 사고의 수준을 조절했다고 보고하였다. Ryan, Russell, Huebner, Diaz와 Sanchez(2010)는 21-25세 LGBT 개인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가족의 수용 수준이 성적 지향성과 정신 건강 간의 관계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가족의 수용 수준이 LGBT 개인의 과거 6개월 동안의 자살 사고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수용된 경험은 LGBT 개인의 더 나은 정신 및 신체적 건강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성적 지향성과 지난 6개월간의 자살 사고 간 관계를 조절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Birkett, Espelage와 Koenig(2009)는 7,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지향성과 자살 사고 간의 관계에 대해 학교와 관련된 맥락적 요인이 갖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Q 집단의 학생은 LGBH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 비해 자살하고 싶은 느낌을 더 높은 수준으로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긍정적 학교 분위기가 성적 지향성 상태와 높은 수준의 우울/자살 느낌 간 관련성을 완충했다는 결과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때 학교 분위기관 개인이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나 교내의 성인에게 받았던 보살핌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을 의미한다. 이처럼 Espelage, Aragon, Birkett과 Koenig(2008)는 동성혐오적 괴롭힘(homophobic teasing)과 다양한 정신 건강 지표 간의 부정적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 학교 분위기가 갖는 효과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고등학생 연구 참가자로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GB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이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우울-자살 느낌을,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Q 집단의 학생이 LGBH 집단의 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우울-자살 느낌을 보고하였다. 동시에 연구자들은 부모의 지지와 긍정적 학교 분위기가 LGBQ 학생의 우울-자살 느낌에 대하여 조절 효과를 나타냈음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외에서 수행된 성적 지향성 및 자살 관련 연구 경향을 체계적 고찰을 통해 분석·정리하여 해당 주제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높은 자살 취약성을 보이는 성적 소수자를 위한 심리적 개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된 연구의 과제 및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요약과 그에 따른 시사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 연도별 성적 지향성 및 자살 관련 논문 수는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련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강조와 성적 소수자 집단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외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 결과, 성적 소수자 지향성을 지닌 개인의 자살 시도 비율은 이성애적 지향성만을 지닌 개인보다 연구에 따라 2-12배 더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국내의 한 성적 소수자 인권단체에서 2014년에 발표한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에서도 시사되었다(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적 소수자 3,159명의 과거 자살 시도율은 28.4%, 자해 시도율은 35.0%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 소수자 지향성과 자살 간 관계 양상을 소상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성적 소수자 지향성이 자살에 이르는 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과 이에 관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더 자주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적 지향성 및 자살 관련 연구를 연구 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다수가 양적 연구 방식에 치중된 양상을 보였다. 특히 메타 분석을 사용한 영어 논문의 수가 2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양적 통합은 다소 결여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질적 연구의 경우 그 수가 8편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본 연구의 분류 기준과 달라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않았으나 사례 연구 및 심리부검 연구가 극소수 존재하였다. 그러나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신장시키고, 목표 전집의 심리적 특성과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심리적 개입을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향후 더 다양한 연구 방법을 비롯한 다학제적 접근의 활발한 수행이 요구된다. 국내의 경우 성적 지향성과 자살에 대한 연구는 연구 방법을 막론하고 연구의 총량이 매우 부족하여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성적 지향성 집단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향후 연구자가 깊이 주의를 기울이고 고민해야 할 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셋째, 연구 참가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및 초기 성인을 연구한 논문의 수가 성인 이상을 살펴본 연구에 비해 약 2.8배 더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성적 소수자 지향성을 지닌 개인의 자살률이 25세

이상에서 대폭 감소하였다는 기존 연구 결과 (Bybee, Sullivan, Zielonka & Moes, 2009; Russell, 2003; Wang, Häusermann, Wydler, Mohler-Kuo & Weiss, 2012)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성적 소수자의 자살률이 25세 이상부터 급감하였다는 연구 결과는 일반적인 양상이라기보다 성적 소수자가 당면한 사회·맥락적 특수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령과 자살률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자살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Shah & De, 1998; Shah, 2007, 2012). 우리나라의 경우 2006, 2015, 2016년에 자살자의 수가 연령대의 증가에 따라 상승하는 양상이 확인된 바 있다(통계청, 2017). 따라서 성적 소수자 지향성을 지닌 24세 이하의 개인이 일반적인 현상과 대조되는 자살률 패턴을 나타낸 이유 혹은 25세 이상의 성적 소수자를 자살로부터 보호하는 변인을 다각도에서 탐색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높은 자살 취약성을 보이는 성적 소수자를 위한 심리적 개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하여, 또 다른 참가자 변인인 성적 소수자 지향성의 분류에 따른 자살 행동 수준의 차이가 확인되었다(Birkett, Espelage & Koenig, 2009; Blosnich & Bossarte, 2012; Button, O'Connell & Gealt, 2012; Espelage, Aragon, Birkett & Koenig, 2008; Poteat, Aragon, Espelage & Koenig, 2009; Robinson & Espelage, 2011). 연구자들은 양성애적 지향성과 Q 성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의 자살 행동 수준이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개인보다 월등히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자신의 성적 지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상태” 또는 “별로 확실하

지 않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 사고를 보였던 점(Birkett, Espelage & Koenig, 2009; Espelage, Aragon, Birkett & Koenig, 2008; Poteat, Aragon, Espelage & Koenig, 2009)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성적 지향성의 하위 범주인 Q는 자신의 성적 지향성 또는 성적 정체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상태(questioning one's sexual orientation or identity)”를 의미하며 “확실하지 않은(not sure)”, “불확실한(unsure)”, “별로 확실하지 않은(less certain)”, “헷갈리는(confused)”, “모름(don't know)”으로 대체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Rose 등(2006)은 성적으로 혼란스러운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높은 자살 사고, 물질 사용, 비행과 같은 위험 요인을 나타냈으며 이 결과가 자살 사고의 분산을 30%까지 설명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자신의 성적 지향성 또는 성적 정체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나 헷갈리는 상태에 처한 개인의 정신 건강은 고위험군에 속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D'Augelli 등(2005)이 수행한 성적 지향성의 측정 방식이라고 본다. D'Augelli 등(2005)은 그들의 종단 연구에서 성적 지향성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총 6개의 선택지(a) 게이 또는 레즈비언; (b) 바이섹슈얼(양성애자)이지만, 거의 완전히 게이 또는 레즈비언; (c) 바이섹슈얼(양성애자)이지만, 주로 게이 또는 레즈비언; (d) 바이섹슈얼(양성애자)이지만, 균등하게 게이/레즈비언 및 헤테로섹슈얼(이성애자); (e) 바이섹슈얼(양성애자)이지만, 주로 헤테로섹슈얼(이성애자); (f) 불확실하거나 의문스러움)를 제공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528명의 LGB 청소년 및 초기 성인 중 (f) uncertain or questioning에 해당되었던 개인은 총 2명뿐이

었다. 이 결과는 종단 연구의 특성상 발생한 측정의 성숙 효과(maturation effect)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구자들이 성적 지향성에 대하여 더 세밀한 분류를 제시함으로써 연구 참가자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세부적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하였기 때문에 응답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헛갈리지 않고 보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상대적으로 더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있는 Q 집단 및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여러 방면에서 조명하는 연구가 국내에서도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내용에 따른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내용의 빈도는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52.5%), 이 관계를 조절 효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38.1%), 그리고 이 관계를 매개 효과 중심으로 알아본 연구(9.4%) 순으로 높았다.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 관계를 조절 효과 중심으로 살펴본 분석 대상 논문 중 절반 이상이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출판되었는데, 이러한 동향은 기존의 문헌에서 성적 지향성과 자살 행동 간 관계의 기본적 특성이 이미 상당 부분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연구 영역을 추가로 확장하고자 한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기타 연구 영역으로 분류된 논문 45편은 연구내용 분류에 포함된 대부분의 연구와 달리 성적 지향성의 정의, 측정 및 연구 방법의 기준이 본질적으로 상이한 논문들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성적 지향성 및 자살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도 성적 지향성 또는 성적 정체성의 구성 개념, 조작적 정의 및 그 하위 구성 요소가 완전히 통일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일례로 한 연구에서는 단 한 개 문항

을 통해 연구 참가자의 성적 지향성을 측정하는 반면, 다른 어떤 연구에서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면담자를 통해 연구 참가자의 성적 정체성을 측정하기도 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적 지향성의 심리학적 구성 요소인 (1) 성적 자기-식별, (2) 성적 끌림 또는 환상, 그리고 (3) 성적 행동(APA, 2008)을 기준으로 하는 성적 지향성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의 개발을 시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향후 성적 지향성의 심리학적 정의와 그 측정 도구에 대한 통일성이 확보된다면, 관련 연구 자료가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전문가 간 의사소통이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됨으로써 관련 주제에 대한 이해와 임상적 개입의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실증 연구에 대한 내용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개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면 관계상 성적 지향성과 자살 간의 관계를 다룬 분석 대상 연구의 내용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었다. 둘째, 본 연구는 성적 지향성을 상이한 방식으로 정의·측정한 기존 연구 결과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연구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수행된 여러 질적 연구 결과를 망라하고자 체계적 고찰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방법의 특성상 매개 및 조절변인의 효과 크기(effect size)와 같은 추가적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방법론적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메타 분석적 연구 방법을 도입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관련 연구와 사회·문화적 현상에서 그 필요성이 강도 높게 시사되었음에도 그동안 국내에서 충분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성적 소수자 지향성과 자살 간의 관계

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포괄적 고찰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성적 소수자 지향성과 자살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매개 및 조절 효과의 측면에서 조명·고찰하였다. 이는 자살과 관련한 심리학적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성적 소수자 지향성을 지닌 개인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질적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병철 (2011).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적 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2), 381-417.
- 강병철, 하경희 (2005).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2(3), 267-289.
- 강병철, 하경희 (2006). 청소년 동성애자의 반동성애 폭력경험과 심리사회적 특성. *아동과 권리*, 10(3), 425-440.
- 강병철, 하경희 (2007). 청소년 동성애자의 드러내기가 자살위험에 미치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 35(0), 167-189.
- 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 비교. *神經精神醫學*, 41(5), 930-941.
- 김성연 (2013).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으로 본 동성애자의 자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니 (2005). 청소년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동성애적 성향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우울과 자살 생각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 박승민 (2011). 작업동맹(working alliance)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25.
- 김진이 (2016). 가족의 태도가 성적 소수자의 커밍아웃 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질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재욱 (2016). 사회적 낙인이 이성애자, 게이, 트랜스젠더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진화 (2008). 동성애자의 자살 관련 행동의 특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승배 (2013). 한국 동성애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380-416.
- 양경미, 방소연, 김순이 (2012). 대학생의 자살 생각 영향요인. *스트레스研究*, 20(1), 41-50.
- 윤가현 (1997). 동성애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가희 (2010). 한국 사회 속 여성 동성애자들의 반동성애 폭력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진(2006). 청소년 동성애 이해 프로그램: 이성애나 동성애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등우리교육*, 195, 58-58.
- 채규만, 정민철(2004). 한국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및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869-886.
- 통계청 (2017). 2016년 사망원인통계.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
- Abelson, J., Lambevski, S., Crawford, J., Bartos, M., & Kippax, S. (2006). Factors associated with 'feeling suicidal': The role of sexual

- identity. *Journal of Homosexuality*, 51(1), 59-80.
- Almazan, E. P., Roettger, M. E., & Acosta, P. S. (2014). Measures of sexual minority status and suicide risk among you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8(3), 274-281.
- Almeida, J., Johnson, R. M., Corliss, H. L., Molnar, B. E., & Azrael, D. (2009). Emotional distress among LGBT youth: The influence of perceive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7), 1001-1014.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8). Answers to your question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sexual orientation and homosexuality. Washington, DC: Author. Retrieved from <http://www.apa.org/topics/lgbt/orientation.aspx>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Answers to your questions about transgender people, gender identity, and gender expression. Retrieved from <http://www.apa.org/topics/lgbt/transgender.aspx>
- Arnarsson, A., Sveinbjornsdottir, S., Thorsteinsson, E. B., & Bjarnason, T. (2015). Suicidal risk and sexual orientation in adolescence: A population-based study in Iceland.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43(5), 497-505.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rnett, J. J. (Ed.).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rreola, S., Neilands, T., Pollack, L., Paul, J., & Catania, J. (2008). Childhood sexual experiences and adult health sequelae among gay and bisexual men: Defining childhood sexual abuse. *Journal of Sex Research*, 45(3), 246-252.
- Baams, L., Grossman, A. H., & Russell, S. T. (2015). Minority stress and mechanisms of risk for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51(5), 688-696.
- Baiocco, R., Ioverno, S., Cerutti, R., Santamaria, F., Fontanesi, L., Lingiardi, V., ... & Laghi, F. (2014). Suicidal ideation in Spanish and Italian lesbian and gay young adults: The role of internalized sexual stigma. *Psicothema*, 26(4), 490-496.
- Becker, M., Cortina, K. S., Tsai, Y. M., & Eccles, J. S. (2014). Sexual orient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A longitudinal analysi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1(2), 132-145.
- Birkett, M., Espelage, D. L., & Koenig, B. (2009). LGB and questioning students in schools: The moderating effects of homophobic bullying and school climate on negative outcom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7), 989-1000.
- Blosnich, J., & Bossarte, R. (2012). Drivers of disparity: Differences in socially based risk factors of self-injurious and suicidal behaviors among sexual minor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0(2), 141-149.
- Blosnich, J. R., Bossarte, R. M., & Silenzio, V. M. B. (2012). Suicidal ideation among sexual

- minority veterans: Results from the 2005 - 2010 massachusetts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urve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S1), S44-S47.
- Blosnich, J. R., Nasuti, L. J., Mays, V. M., & Cochran, S. D. (2016). Suicidality and sexual orientation: Characteristics of symptom severity, disclosure, and timing across the life cours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6(1), 69-78.
- Bolton, S., & Sareen, J. (2011). Sexual orientation and its relation to mental disorders and suicide attempts: Finding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6(1), 35-43. Retrieved from <http://search.proquest.com/docview/883436328?accountid=15179>
- Bontempo, D. E., & d'Augelli, A. R. (2002). Effects of at-school victimization and sexual orientation on lesbian, gay, or bisexual youths' health risk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0(5), 364-374.
- Bouris, A., Everett, B. G., Heath, R. D., Elsaesser, C. E., & Neilands, T. B. (2016). Effects of victimization and violence on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s among sexual minority and heterosexual adolescents. *LGBT health*, 3(2), 153-161.
- Bouris, A., Guilamo-Ramos, V., Pickard, A., Shiu, C., Loosier, P. S., Dittus, P., ... & Waldmiller, J. M. (2010). A systematic review of parental influences o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Time for a new public health research and practice agenda.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31(5-6), 273-309.
- Braitstein, P., Asselin, J., Schilder, A., Miller, M., Laliberté, N., Schechter, M. T., & Hogg, R. S. (2006). Sexual violence among two populations of men at high risk of HIV infection. *AIDS Care*, 18(7), 681-689.
- Button, D. M. (2015). A general strain approach comparing the effects of victimization,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self-efficacy on LGBQ and heterosexual youth suicidality. *Criminal Justice Studies*, 28(4), 484-502.
- Burton, C. M., Marshal, M. P., Chisolm, D. J., Sucato, G. S., & Friedman, M. S. (2013). Sexual minority-related victimization as a mediator of mental health disparities in sexual minority youth: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3), 394-402.
- Button, D. M. (2016).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Victimization: Applying General Strain Theory to the Experiences of LGBQ Youth. *Deviant Behavior*, 37(5), 537-556.
- Button, D. M., O'Connell, D. J., & Gealt, R. (2012). Sexual minority youth victimization and social support: The intersection of sexuality, gender, race, and victimization. *Journal of Homosexuality*, 59(1), 18-43.
- Button, D. M., & Worthen, M. G. (2014). General Strain Theory for LGBQ and SSB Youth The Importance of Intersectionality in the Future of Feminist Criminology. *Feminist Criminology*, 9(4), 270-297.
- Bybee, J. A., Sullivan, E. L., Zielonka, E., & Moes, E. (2009). Are gay men in worse mental health than heterosexual men? the role of age, shame and guilt, and coming-out.

-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6(3), 144-154.
- Cardom, R., Rostosky, S., & Danner, F. (2013). Does "it get better" for depressed sexual minority youth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3(5), 671-673.
- Cénat, J. M., Blais, M., Hébert, M., Lavoie, F., & Guerrier, M. (2015). Correlates of bullying in Quebec high school students: The vulnerability of sexual-minority youth.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83, 315-321.
- Cochran, S. D., & Mays, V. M. (2015). Mortality risks among persons reporting same-sex sexual partners: Evidence from the 2008 General Social Survey—National death index data set.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5(2), 358-364.
- Cochran, S. D., & Mays, V. M. (2011). Sexual orientation and mortality among US men aged 17 to 59 years: Results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II.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1(6), 1133-1138.
- Cochran, S. D., Mays, V. M., Alegria, M., Ortega, A. N., & Takeuchi, D. (2007).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mong latino and asian american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5(5), 785-794.
- Coker, T. R., Austin, S. B., & Schuster, M. A. (2010). The health and health care of lesbian, gay, and bisexual adolescent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31, 457-477.
- Collier, K. L., van Beusekom, G., Bos, H. M. W., & Sandfort, T. G. M. (2013).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expression related peer victimization in adolescence: A systematic review of associated psychosocial and health outcomes. *Journal of Sex Research*, 50(3-4), 299-317.
- Conron, K. J., Mimiaga, M. J., & Landers, S. J. (2010). A population-based study of sexual orientation identity and gender differences in adult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10), 1953-1960.
- Cover, R. (2013). Conditions of living: Queer youth suicide, homonormative tolerance, and relative misery. *Journal of LGBT Youth*, 10(4), 328-350.
- Craig, S. L., & McInroy, L. (2013). The relationship of cumulative stressors, chronic illness and abuse to the self reported suicide risk of black and hispanic sexual minority yout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7), 783-798.
- Cramer, R. J., Burks, A. C., Stroud, C. H., Bryson, C. N., & Graham, J. (2015). A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of suicide proneness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community membe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4(7), 622-641.
- Cramer, R. J., Stroud, C. H., Fraser, T., & Graham, J. (2014). A trait interpersonal analysis of suicide proneness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community member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4(6), 601-615.
- D'augelli, A. R., Grossman, A. H., Salter, N. P., Vasey, J. J., Starks, M. T., & Sinclair, K. O. (2005). Predicting the suicide attempts of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5(6), 646-660.

- de Graaf, R., Sandfort, T. G. M., & ten Have, M. (2006). Suicidality and sexual orientation: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a general population-based sample from the netherland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5(3), 253-262.
- Dean, L., Meyer, I. H., Robinson, K., Sell, R. L., Sember, R., Silenzio, V. M., ... & Dunn, P. (2000).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health: Findings and concerns. *Journal of the Gay and Lesbian Medical Association*, 4(3), 102-151.
- Denny, S., Lucassen, M. F., Stuart, J., Fleming, T., Bullen, P., Peiris-John, R., ... & Utter, J. (2016). The association between supportive high school environments and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ity among sexual minority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5(3), 248-261.
- Deuba, K., Ekström, A. M., Shrestha, R., Ionita, G., Bhatta, L., & Karki, D. K. (2013). Psychosocial health problems associated with increased HIV risk behavior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in nepal: A cross-sectional survey. *PLoS ONE*, 8(3), 1-11.
- Diamond, G. M., Shilo, G., Jurgensen, E., D'Augelli, A., Samarova, V., & White, K. (2011). How depressed and suicidal sexual minority adolescents understand the causes of their distress. *Journal of Gay & Lesbian Mental Health*, 15(2), 130-151.
- DiFulvio, G. T. (2011). Sexual minority youth, social connection and resilience: From personal struggle to collective identity. *Social Science & Medicine*, 72(10), 1611-1617. Retrieved from <http://search.proquest.com/docview/894160961?accountid=15179>
- Dirkes, J., Hughes, T., Ramirez Valles, J., Johnson, T., & Bostwick, W. (2016). Sexual identity development: Relationship with lifetime suicidal ideation in sexual minority wome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5, 3545-3556.
- Duncan, D. T., & Hatzenbuehler, M. L. (2014).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hate crimes and suicidality among a population-based sample of sexual-minority adolescents in Bost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4(2), 272-278.
- Dyer, T. P., Regan, R., Pacek, L. R., Acheampong, A., & Khan, M. R. (2015). Psychosocial vulnerability and HIV-related sexual risk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and women in the United Stat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4(2), 429-441.
- Eisenberg, M. E., Gower, A. L., & McMorris, B. J. (2016). Emotional health of lesbian, gay, bisexual and questioning bullies: Does it differ from straight bull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1), 105-116.
- Eisenberg, M. E., McMorris, B. J., Gower, A. L., & Chatterjee, D. (2016). Bullying victimization and emotional distress: Is there strength in numbers for vulnerable youth?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86, 13-19.
- Eisenberg, M. E., & Resnick, M. D. (2006). Suicidality among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9(5), 662-668.
- Eliason, M. (2011).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 on suicide, mental health, and youth development. *Journal of Homosexuality*, 58(1), 4-9.
- Eskin, M., Kaynak-Demir, H., & Demir, S. (2005). Same-sex sexual orientation, childhood sexual abuse, and suicidal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in turkey.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4(2), 185-195.
- Espelage, D. L., Aragon, S. R., Birkett, M., & Koenig, B. W. (2008). Homophobic teasing, psychological outcomes, and sexual orient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What influence do parents and schools have? *School Psychology Review*, 37(2), 202-216. Retrieved from <http://search.proquest.com/docview/622051512?accountid=15179>
- Fergusson, D. M., Horwood, L. J., Ridder, E. M., & Beautrais, A. L. (2005). Sexual orientation and mental health in a birth cohort of young adults. *Psychological Medicine*, 35(7), 971-981.
- Fish, J. N., & Pasley, K. (2015). Sexual (minority) trajectories, mental health, and alcohol use: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as they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8), 1508-1527.
- Fitzpatrick, K. K., Euton, S. J., Jones, J. N., & Schmidt, N. B. (2005). Gender role, sexual orientation and suicide risk.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7(1), 35-42.
- Fleming, T. M., Merry, S. N., Robinson, E. M., Denny, S. J., & Watson, P. D. (2007). Self-reported suicide attempts and associate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new zealand.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1(3), 213-221.
- Flynn, A. B., Johnson, R. M., Bolton, S. L., & Mojtabai, R. (2016). Victimization of lesbian, gay, and bisexual people in childhood: Associations with attempted suicid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6(4), 457-470.
- Fried, L. E., Williams, S., Cabral, H., & Hacker, K. (2013). Differences in risk factors for suicide attempts among 9th and 11th grade youth: A longitudinal perspective.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29(2), 113-122. Retrieved from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426226444?accountid=15179>
- Garnett, B. R., Masyn, K. E., Austin, S. B., Miller, M., Williams, D. R., & Viswanath, K. (2014). The intersectionality of discrimination attributes and bullying among youth: An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8), 1225-1239.
- Garofalo, R., Wolf, R. C., Kessel, S., Palfrey, J., & Durant, R. H. (1998). The association between health risk behaviors and sexual orientation among a school-based sample of adolescents. *Pediatrics*, 101(5), 895-902.
- Gattis, M. N., & Larson, A. (2016). Perceived racial, sexual identity, and homeless status-related discrimination among Black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experiencing homelessness: Relations with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i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6(1), 79-90.
- Gibbs, J. J., & Goldbach, J. (2015). Religious conflict, sexual identity, and suicidal behaviors among LGBT young adult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9(4), 472-488.

- Goodenow, C., Szalacha, L., & Westheimer, K. (2006). School support groups, other school factors, and the safety of sexual minority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43*(5), 573-589.
- Haas, A. P., Eliason, M., Mays, V. M., Mathy, R. M., Cochran, S. D., D'Augelli, A. R., ... & Clayton, P. J. (2011). Suicide and suicide risk in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opulations: Review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Homosexuality, 58*(1), 10-51.
- Hatzenbuehler, M. L. (2011). The social environment and suicide attempts in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Pediatrics, 127*(5), 896-903.
- Hatzenbuehler, M. L., Birkett, M., Van Wagenen, A., & Meyer, I. H. (2014). Protective school climates and reduced risk for suicide ideation in sexual minority youths. *Journal Information, 104*(2), 279-286.
- Hatzenbuehler, M. L., & Keyes, K. M. (2013). Inclusive anti-bullying policies and reduced risk of suicide attempts in lesbian and gay you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3*(1), S21-S26.
- Hegna, K., & Wichstrøm, L. (2007). Suicide attempts among norwegian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s: General and specific risk factors. *Acta Sociologica, 50*(1), 21-37.
- Hidaka, Y., & Operario, D. (2006). Attempted suicide, psychological health and exposure to harassment among japanese homosexual, bisexual or other men questioning their sexual orientation recruited via the internet.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0*(11), 962-967.
- Hightow-Weidman, L., Phillips, G., II, Jones, K. C., Outlaw, A. Y., Fields, S. D., & Smith, J. C. (2011). Racial and sexual identity-related maltreatment among minority YMSM: Prevalence, perceptions, and the association with emotional distress. *AIDS Patient Care and STDs, 25*, S39-S45.
- Hill, R. M., & Pettit, J. W. (2012). Suicidal ideation and sexual orient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roles of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rejection due to sexual orient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2*(5), 567-579.
- Holloway, I. W., Padilla, M. B., Willner, L., & Guilamo-Ramos, V. (2015). Effects of minority stress processes on the mental health of Latino men who have sex with men and women: A qualitative study.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4*(7), 2087-2097.
- Horton, P. (2014). 'I thought I was the only one': The misrecognition of LGBT youth in contemporary Vietnam. *Culture, Health & Sexuality, 16*(8), 960-973.
- Hottes, T. S., Gesink, D., Ferlatte, O., Brennan, D. J., Rhodes, A. E., Marchand, R., & Trussler, T. (2016). Concealment of sexual minority identities in interviewer-administered government surveys and its impact on estimates of suicide ideation among bisexual and gay men. *Journal of Bisexuality, 16*(4), 427-453.
- Hughes, J. R. (2006). A general review of recent reports on homosexuality and lesbianism.

- Sexuality and Disability*, 24(4), 195-205.
- Irwin, J. A., & Austin, E. L. (2013). Suicide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among white southern lesbians. *Journal of Gay & Lesbian Mental Health*, 17(1), 4-20.
- Jackman, K., Honig, J., & Bockting, W. (2016). Nonsuicidal self injury among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opulations: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5(23-24), 3438-3453.
- Jacobsen, J., & Wright, R. (2014). Mental health implications in mormon women's experiences with same-sex attraction a qualitative stud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2(5), 664-696.
- Jiang, Y., Perry, D. K., & Hesser, J. E. (2010). Adolescent suicide and health risk behaviors: Rhode island's 2007 youth risk behavior surve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8(5), 551-555.
- Julien, D., Jouvin, E., Jodoin, E., l'Archevêque, A., & Chartrand, E. (2008). Adjustment among mothers reporting same-gender sexual partners: A study of a representative population sample from quebec province (canada).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7(6), 864-876.
- Kim, S., & Yang, E. (2015). Suicidal ideation in gay men and lesbians in South Korea: A test of the interpersonal psychological model.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5(1), 98-110.
- King, M., Semlyen, J., Tai, S. S., Killaspy, H., Osborn, D., Popelyuk, D., & Nazareth, I. (2008). A systematic review of mental disorder, suicide, and deliberate self harm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eople. *BMC Psychiatry*, 8(1), 1-17.
- Lea, T., de Wit, J., & Reynolds, R. (2014). Minority stress in lesbian, gay, and bisexual young adults in Australia: Associations with psychological distress, suicidality, and substance us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3(8), 1571-1578.
- Legleye, S., Beck, F., Peretti-Watel, P., Chau, N., & Firdion, J. M. (2010). Suicidal ideation among young french adults: Association with occupation, family, sexual activity, personal background and drug us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3(1-3), 108-115.
- Levy, S. A., Russon, J., & Diamond, G. M. (2016). Attachment Based family therapy for suicidal lesbian, gay, and bisexual adolescents: A case stud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Family Therapy*, 37(2), 190-206.
- Lhomond, B., & Saurel-Cubizolles, M. (2006). Violence against women and suicide risk: The neglected impact of same-sex sexual behaviour. *Social Science & Medicine*, 62(8), 2002-2013.
- Liu, R. T., & Mustanski, B. (2012). Suicidal ideation and self-harm in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42(3), 221-228.
- Livingston, N. A., Heck, N. C., Flentje, A., Gleason, H., Oost, K. M., & Cochran, B. N. (2015). Sexual minority stress and suicide risk: Identifying resilience through personality profile analysis.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2(3), 321-328.
- Loosier, P. S., & Dittus, P. J. (2010). Group differences in risk across three domains using an expanded measure of sexual orientation.

-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31(5-6), 261-272.
- Lytle, M. C., De Luca, S. M., & Blosnich, J. R. (2014). The influence of intersecting identities on self harm, suicidal behaviors, and depression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individual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4(4), 384-391.
- Marshall, M. P., Dermody, S. S., Cheong, J., Burton, C. M., Friedman, M. S., Aranda, F., & Hughes, T. L. (2013).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ity among heterosexual and sexual minority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8), 1243-1256.
- Marshall, M. P., Dietz, L. J., Friedman, M. S., Stall, R., Smith, H. A., McGinley, J., ... & Brent, D. A. (2011). Suicidality and depression disparities between sexual minority and heterosexual youth: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9(2), 115-123.
- Matarazzo, B. B., Barnes, S. M., Pease, J. L., Russell, L. M., Hanson, J. E., Soberay, K. A., & Gutierrez, P. M. (2014). Suicide risk among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military personnel and veterans: What does the literature tell u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4(2), 200-217.
- Mathy, R. M., Cochran, S. D., Olsen, J., & Mays, V. M. (2011). The association between relationship markers of sexual orientation and suicide: Denmark, 1990 - 2001.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6(2), 111-117.
- McAndrew, S., & Warne, T. (2010). Coming out to talk about suicide: Gay men and suicid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19(2), 92-101.
- McDermott, E., Roen, K., & Scourfield, J. (2008). Avoiding shame: Young LGBT people, homophobia and self-destructive behaviours. *Culture, Health & Sexuality*, 10(8), 815-829.
- McLaughlin, K. A., Hatzenbuehler, M. L., Xuan, Z., & Conron, K. J. (2012). Disproportionate exposure to early-life adversity and sexual orientation disparities in psychiatric morbidity. *Child Abuse & Neglect*, 36(9), 645-655.
- Meyer, I. H., Teylan, M., & Schwartz, S. (2015). The role of help seeking in preventing suicide attempts among lesbians, gay men, and bisexual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5(1), 25-36.
- Moon, M. W., Fornili, K., & O'Brian, A. L. (2007). Risk comparison among youth who report sex with same-sex versus both-sex partners. *Youth & Society*, 38(3), 267-284.
- Mu, H., Li, Y., Liu, L., Na, J., Yu, L., Bi, X., ... & Zhang, R. (2016). Prevalence and risk factors for lifetime suicide ideation, plan and attempt in Chinese men who have sex with men. *BMC Psychiatry*, 16(1), 1-10.
- Mueller, A. S., James, W., Abrutyn, S., & Levin, M. L. (2015). Suicide ideation and bullying among US adolescents: Examining the intersections of sexual orientation, gender, and race/ethnic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5(5), 980-985.
- Mustanski, B. S., Garofalo, R., & Emerson, E. M. (2010). Mental health disorders, psychological distress, and suicidality in a diverse sample of

-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12), 2426-2432.
- Mustanski, B., & Liu, R. T. (2013). A longitudinal study of predictors of suicide attempts among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2(3), 437-448.
- Needham, B. L. (2012). Sexual attraction and trajectories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uring the transition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2), 179-190.
- Needham, B. L., & Austin, E. L. (2010). Sexual orientation, parental support, and health during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10), 1189-1198.
- Outlaw, A. Y., Phillips, G., II, Hightow-Weidman, L., Fields, S. D., Hidalgo, J., Halpern-Felsher, B., & Green-Jones, M. (2011). Age of MSM sexual debut and risk factors: Results from a multisite study of racial/ethnic minority YMSM living with HIV. *AIDS Patient Care and STDs*, 25(S1), S23-S29.
- Peter, T., Taylor, C., & Campbell, C. (2016). "You can't break... when you're already broken": The importance of school climate to suicidality among LGBTQ youth. *Journal of Gay & Lesbian Mental Health*, 20(3), 195-213.
- Plöderl, M., & Fartacek, R. (2009). Childhood gender nonconformity and harassment as predictors of suicidality among gay, lesbian, bisexual, and heterosexual austria.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8(3), 400-410.
- Plöderl, M., Kralovec, K., & Fartacek, R. (2010). The relation between sexual orientation and suicide attempts in austria.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6), 1403-1414.
- Plöderl, M., & Tremblay, P. (2015). Mental health of sexual minoritie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27(5), 367-385.
- Plöderl, M., Wagenmakers, E., Tremblay, P., Ramsay, R., Kralovec, K., Fartacek, C., & Fartacek, R. (2013). Suicide risk and sexual orientation: A critical review.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2(5), 715-727.
- Pompili, M., Lester, D., Forte, A., Seretti, M. E., Erbuto, D., Lamis, D. A., ... & Girardi, P. (2014). Bisexuality and suicide: A systematic review of the current literature. *The Journal of Sexual Medicine*, 11(8), 1903-1913.
- Poon, C. S., & Saewyc, E. M. (2009). Out yonder: Sexual-minority adolescents in rural communities in british columbi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9(1), 118-124.
- Poteat, V. P., Aragon, S. R., Espelage, D. L., & Koenig, B. W. (2009). Psychosocial concerns of sexual minority youth: Complexity and caution in group differenc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7(1), 196-201.
- Poteat, V. P., Mereish, E. H., DiGiovanni, C. D., & Koenig, B. W. (2011). The effects of general and homophobic victimization on adolescents' psychosocial and educational concerns: The importance of intersecting identities and parent sup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4), 597-609.
- Power, E., Coughlan, H., Clarke, M., Kelleher, I.,

- Lynch, F., Connor, D., Fitzpatrick, C., Harley, M. and Cannon, M. (2016). Nonsuicidal self-injury, suicidal thoughts and suicide attempts among sexual minority youth in Ireland during their emerging adult years. *Early Intervention in Psychiatry*, 10(5), 441 - 445.
- K. E., & Mimiaga, M. J. (2014). A compensatory model of risk and resilience applied to adolescent sexual orientation disparities in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e attemp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4(5), 545-556.
- Renaud, J., Berlim, M. T., Begolli, M., McGirr, A., & Turecki, G. (2010).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n youth suicide victims: An exploratory study.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5(1), 29-34. Retrieved from <http://search.proquest.com/docview/879097399?accountid=15179>
- Robinson, J. P., & Espelage, D. L. (2011). Inequities i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outcomes between LGBTQ and straight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al Researcher*, 40(7), 315-330.
- Robinson, J. P., & Espelage, D. L. (2012). Bullying explains only part of LGBTQ - heterosexual risk disparitie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Educational Researcher*, 41(8), 309-319.
- Rosario, M., Schrimshaw, E. W., & Hunter, J. (2005). Psychological distress following suicidality among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s: Role of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2), 149-161.
- Rose, H. A., Rodgers, K. B., & Small, S. A. (2006). Sexual identity confusion and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ts: A risk and resilience approach. *Marriage & Family Review*, 40(2-3), 131-160.
- Russell, S. T. (2003). Sexual minority youth and suicide risk.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9), 1241-1257.
- Russell, S. T., & Joyner, K. (2001). Adolescent sexual orientation and suicide risk: Evidence from a national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8), 1276 - 1280.
- Russell, S. T., & Toomey, R. B. (2012). Men's sexual orientation and suicide: evidence for US adolescent-specific risk. *Social Science & Medicine*, 74(4), 523-529.
- Ryan, C., Russell, S. T., Huebner, D., Diaz, R., & Sanchez, J. (2010). Family acceptance in adolescence and the health of LGBT young adult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23(4), 205-213.
- Sabidó, M., Kerr, L. R. F. S., Mota, R. S., Benzaken, A. S., Pinho, A. D. A., Guimaraes, M. D., ... & Kendall, C. (2015). Sexual Violence Against Men Who Have Sex with Men in Brazil: A Respondent-Driven Sampling Survey. *AIDS and Behavior*, 19(9), 1630-1641.
- Safren, S. A., & Heimberg, R. G. (1999). Depression, hopelessness, suicidality, and related factors in sexual minority and heterosexual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6), 859 - 866.
- Sanders, E. K., & Chalk, H. M. (2016). Predictors of Psychological Outcomes in Nonheterosexual Individuals. *Psi Chi Journal of Psychological*

- Research*, 21(2), 100-110.
- Scourfield, J., Roen, K., & McDermott, L. (2008).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ng people's experiences of distress: Resilience, ambivalence and self-destructive behaviour.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16(3), 329-336.
- Seil, K. S., Desai, M. M., & Smith, M. V. (2014). Sexual orientation, adult connectedness, substance use, and mental health outcomes among adolescents: Findings from the 2009 New York City Youth Risk Behavior Survey. *Journal Information*, 104(10), 1950-1956.
- Selemogwe, M., & White, D. (2013). An overview of gay, lesbian and bisexual issues in botswana. *Journal of Gay & Lesbian Mental Health*, 17(4), 406-414.
- Shadick, R., Dagirmanjian, F. B., & Barbot, B. (2015). Suicide Risk Among College Students. *Crisis*, 36(6), 416-423.
- Shah, A.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rates and age: An analysis of multinational data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19(6), 1141-1152.
- Shah, A. (2012). Suicide rates: Age-associated trends and their correlates. *Journal of Injury and Violence Research*, 4(2), 79 - 86.
- Shah, A., & De, T. (1998). Suicide and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2(1), 3-17.
- Shearer, A., Herres, J., Kodish, T., Squitieri, H., James, K., Russon, J., ... & Diamond, G. S. (2016).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symptoms across lesbian, gay, bisexual, and questioning youth in primary care setting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9(1), 38-43.
- Shields, J. P., Whitaker, K., Glassman, J., Franks, H. M., & Howard, K. (2012). Impact of victimization on risk of suicide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high school students in san francisco.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0(4), 418-420.
- Shtayermman, O., Reilly, B. E., & Knight, K. L. (2012). An examination of DSM-IV-TR risk factors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Best Practices in Mental Health: An International Journal*, 8(1), 52-69. Retrieved from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033449180?accountid=15179>
- Silenzio, V. M. B., Pena, J. B., Duberstein, P. R., Cerel, J., & Knox, K. L. (2007). Sexual orientation and risk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11), 2017-2019.
- Silva, C., Chu, C., Monahan, K. R., & Joiner, T. E. (2015). Suicide risk among sexual minority college students: A mediated moderation model of sex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2(1), 22-23.
- Sinclair, K. O., Bauman, S., Poteat, V. P., Koenig, B., & Russell, S. T. (2012). Cyber and bias-based harassment: Associations with academic, substance use, and mental health problem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0(5), 521-523.
- Skerrett, D. M., Kølves, K., & De Leo, D. (2015). Are LGBT populations at a higher

- risk for suicidal behaviors in Australia? Research finding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Homosexuality*, 62(7), 883-901.
- Skerrett, D. M., Kølves, K., & De Leo, D. (2016). Factors related to suicide in LGBT populations: A psychological autopsy case-control study in Australia. *Crisis*, 37(5), 361-369.
- Smalley, N., Scourfield, J., & Greenland, K. (2005). Young people, gender and suicide: A review of research on the social context. *Journal of Social Work*, 5(2), 133-154.
- Smith, B. C., Armelie, A. P., Boarts, J. M., Brazil, M., & Delahanty, D. L. (2016). PTSD, depression, and substance use in relation to suicidality risk among traumatized minority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20(1), 80-93.
- Solarz, A. L. (Ed.). (1999). *Lesbian health: Current assessment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 (2008). *Suicide risk and prevention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Newton, MA: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Retrieved from http://www.sprc.org/sites/default/files/migrate/library/SPRC_LGBT_Youth.pdf
- Sutter, M., & Perrin, P. B. (2016). Discrimination, mental health, and suicidal ideation among LGBTQ people of col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3(1), 98-105.
- Steele, L. S., Ross, L. E., Dobinson, C., Veldhuizen, S., & Tinmouth, J. M. (2009). Women's sexual orientation and health: Results from a Canadian population-based survey. *Women & Health*, 49(5), 353-367.
- Stone, D. M., Luo, F., Lippy, C., & McIntosh, W. L. (2015). The role of social connectedness and sexual orientation in the prevention of youth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among sexually active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5(4), 415-430.
- Stone, D. M., Luo, F., Ouyang, L., Liffy, C., Hertz, M. F., & Crosby, A. E. (2014). Sexual orientation and suicide ideation, plans, attempts, and medically serious attempts: Evidence from local youth risk behavior surveys, 2001 - 2009.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4(2), 262 - 271.
- Stroud, C. H., Cramer, R. J., La Guardia, A. C., Crosby, J. W., & Henderson, C. E. (2015). Personality, spirituality, suicide, and self-injury proneness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8(9), 777-788.
- Subhi, N., & Geelan, D. (2012). When christianity and homosexuality collide: Understanding the potential intrapersonal conflict. *Journal of Homosexuality*, 59(10), 1382-1402.
- Swannell, S., Martin, G., & Page, A. (2016). Suicidal ideation, suicide attempts and non-suicidal self-injury among lesbian, gay, bisexual and heterosexual adults: Findings from an Australian national stud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50(2), 145-153.
- Tabaac, A. R., Perrin, P. B., & Rabinovitch, A. E.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uicide risk in a national sample of ethnically diverse sexual minority women.

- Journal of Gay & Lesbian Mental Health*, 20(2), 116-126.
- Talley, A. E., Brown, S. L., Cukrowicz, K., & Bagge, C. L. (2015). Sexual Self Concept Ambiguity and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Risk.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6(2), 127-140.
- Teasdale, B., & Bradley-Engen, M. (2010). Adolescent same-sex attraction and mental health: The role of stress and support. *Journal of Homosexuality*, 57(2), 287-309.
- Tomori, C., McFall, A. M., Srikrishnan, A. K., Mehta, S. H., Solomon, S. S., Anand, S., ... & Celentano, D. D. (2016). Diverse rates of depression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MSM) across India: Insights from a multi-site mixed method study. *AIDS and Behavior*, 20(2), 304-316.
- Tsypes, A., Lane, R., Paul, E., & Whitlock, J. (2016).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in heterosexual and sexual minority young adults. *Comprehensive Psychiatry*, 65, 32-43.
- Vaccaro, A., & Mena, J. A. (2011). It's not burnout, it's more: Queer college activists of color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Gay & Lesbian Mental Health*, 15(4), 339-367.
- van Lisdonk, J., & Keuzenkamp, S. (2016). Towards bi-inclusive policies: Suggestions based on research on Dutch same-sex attracted young people.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14(2), 1-17.
- Velkoff, E. A., Forrest, L. N., Dodd, D. R., & Smith, A. R. (2016). Identit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disclosure: Predicting suicide risk among sexual minorit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0(2), 261-274.
- Walls, N. E., Potter, C., & Van Leeuwen, J. (2009). Where risks and protective factors operate differently: Homeless sexual minority youth and suicide attempts. *Child &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6(3), 235-257.
- Wang, J., Häusermann, M., Wydler, H., Mohler-Kuo, M., & Weiss, M. G. (2012). Suicidality and sexual orientation among men in switzerland: Findings from 3 probability survey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6(8), 980-986.
- Wells, K. (2009). Research exploring the health, wellness, and safety concerns of sexual minority youth.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18(4), 221-229. Retrieved from <http://search.proquest.com/docview/754033354?accountid=15179>
- Whitaker, K., Shapiro, V. B., & Shields, J. P. (2016). School-based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suicide for lesbian, gay, and bisexual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8(1), 63-68.
- Wilder, H., & Wilder, J. (2012). In the wake of Don't ask Don't tell: Suicide prevention and outreach for LGB service members. *Military Psychology*, 24(6), 624-642.
- Williams, K. A., & Chapman, M. V. (2011). Comparing health and mental health needs, service use, and barriers to services among sexual minority youths and their peers. *Health & Social Work*, 36(3), 197-206.
- Woodhead, C., Gazard, B., Hotopf, M., Rahman, Q., Rimes, K. A., & Hatch, S. L. (2016).

- Mental health among UK inner city non-heterosexuals: The role of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and place. *Epidemiology and Psychiatric Sciences*, 25(5), 450-461.
- Woodward, E. N., Wingate, L., Gray, T. W., & Pantalone, D. W. (2014). Evaluating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as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sexual minority adults.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1(3), 234-243.
- Zhao, Y., Montoro, R., Igartua, K., & Thombs, B. D. (2010).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 among adolescents reporting "unsure" sexual identity or heterosexual identity plus same-sex attraction or behavior: Forgotten group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9(2), 104-113.
- 1차원고접수 : 2017. 07. 18.
수정원고접수 : 2018. 05. 06.
최종게재결정 : 2018. 06. 15.

Systematic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Minority Orientation and Suicide Risk

Hyeong Ji Kim

Hyang Sook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sexual minority orientation is reported to be associated with higher risk of suicidal behaviors than heterosexual orientation. Considering the gravity of the consequences of suicide, the above results deserve further investigation by researchers. Therefore, the present study aimed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rientation and suicide risk by analyzing peer-reviewed journal articles registered in PsycINFO database from January 1, 2005 to December 31, 2016 inclusiv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number of journal articles on sexual orientation and suicide has been on the rise over time. The research methods of the literature were divided into two major categories: empirical research and theoretical/literature review, and the former is subdivided into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eta-analytic research. Except for the meta-analytic research, the sexual orientation self-reported by people who participated in empirical research was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Lesbian, Gay, and Bisexual(LGB), Heterosexual(H), Questioning/Unsure(Q), Lesbian and Gay(LG), and others. The content of entire papers this article includes largely falls into three categori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rientation and suicidal behaviors and mediating and moderating factors which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rientation and suicidal behaviors. Finally, encapsulated results of the current article as well as the need and direction of related research in the future were discussed.

Key words : Sexual Minority Orientation, Suicide Risk